

11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11 월로 접어들게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며 첫얼음이 얼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본격적인 겨울철 대비를 위한 월동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불황기에 맞게 되는 겨울철 특별 대책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로 국내의 산업 전반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양돈업계의 불황도 현실로 다가왔다. 이번 불황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 양돈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루게 될지는 미지수이나 어쨌든 많은 양돈장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농장 경영방식을 탈피해 새로운 시작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1) 모돈 사육두수가 줄더라도 알찬 모돈만을 보유하자.

대부분의 농장에서 7산 이상의 모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10%를 훨씬 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0%~20% 이내이다. 이러한 모돈을 포함하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 클리닉, 한국양돈컨설팅그룹)

여 연속사고돈이나 저능력 모돈을 색출하여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도태를 시켜야 한다.

돈가가 좋을 경우는 생산성이 좋고 나쁨을 떠나 일단 돼지가 있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불황기에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다. 오히려 이러한 돼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적자폭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노산돈과 문제모돈을 대략 15~20%정도 추려서 속히 도태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유모돈이 숫자으로는 줄더라도 능력면에서는 정예화 되기 때문에 출하두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생산비 절감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효과

- 전체적인 번식 생산성 향상
- 충실한 포유자돈이 생산되므로 허약돈 및 폐사율이 감소되고 비육성적 향상.
- 분만틀에 다소 여유가 있어 분만전후 모돈 관리가 용이하다.
- 결국 모돈 두당 비육돈 출하체중이 늘어나게 된다.

대부분의 농장에서 7산 이상의 모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10%를 훨씬 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0%~20% 이내이다. 이러한 모돈을 포함하여 연속사고돈이나 저능력 모돈을 색출하여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도태를 시켜야 한다. 돈가가 좋을 경우는 생산성이 좋고 나쁨을 떠나 일단 돼지가 있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불황기에 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다. 오히려 이러한 돼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적자폭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노산돈과 문제모돈을 대략 15~20%정도 추려서 속히 도태시키도록 한다.

2) 모돈수가 줄더라도 후보돈 확보는 계속 한다.

앞서 노산돈 및 문제돈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도태를 언급했는데 이렇게 도태만 시키고 후보돈 보충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농장 전체의 회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단순히 모돈수를 줄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돈군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늙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모돈을 일정 수준 도태시키고 젊은 후보돈이 지속적으로 보충이 되어 전체 모돈군을 젊게 끌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

3) 밀사를 방지한다.

흔히 겨울철에는 돈방 수용두수를 늘려 주는데 이는 돼지의 체열을 조금이라도 더 증가시켜 돈사내 적정온도 유지를 돋기 위한 것이다. 보통 평상시 수용두수의 10% 이내에서 늘려 주는 것이 좋다. 수용두수가 너무 많을 경우 밀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차라리 자돈판매를 해서라도 가급적 이러한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사료비 절감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사료비는 생산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대개 불황기때면 사료비 때문에

고전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료비를 절감시킬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구매단계에서의 절감 : 공동구매, 현금구매
- 급여단계에서의 절감 : 사육단계별 적정 사료급여, 사육환경 개선, 위생관리수준 향상, 사료허설 방지 (체형에 맞는 먹이통), 신선한 음수의 충분한 공급.
- 기타 : 종돈 개량으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번식돈군 확보, 인공수정 비율 증가 (인공수정은 숙달이 되면 가급적 1차 교배시점부터 실시해야 개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가 치료약제 사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돈군이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면 이미 생산성 저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성장곡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병 대책을 예방 위주로 변환시켜야 한다.

- 백신접종.
- 밀사 절대금지
- 환경개선제 사용 : 돈사내 가스발생을 줄여 주는 제제, 돈사내 분무소독 강화.
- 가급적 올-인, 올-아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한다.

이번 불황을 극복하여 경쟁력 있는 양돈장으로써 든든한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흔히 겨울철에는 돈방 수용두수를 늘려 주는데 이는 돼지의 체열을 조금이라도 더 증가시켜 돈사내 적정온도 유지를 돋기 위한 것이다. 보통 평상시 수용두수의 10% 이내에서 늘려 주는 것이 좋다.

노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최고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산비는 최소화하기 위한 사육 체계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수입육류 와의 품질 및 안전도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황기에는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평상시처럼 안일하게 대응하는 농장은 곧바로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 겨울을 새로운 각오로 준비하도록 하자.

2. 시설 및 환경관리

무창돈사가 아닌 대부분의 돈사의 경우 외기온도에 의해 실내온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 및 단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시설관리

- 각 돈사의 벽에 이중 또는 삼중으로 비닐을 설치하여 밀폐시킨다.

- 돈사 출입문에 대한 보온 및 샷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덮개를 설치한다.
- 열풍기 및 히터의 가동 유무를 점검하고 각 돈사에 설치한다.
- 급수배관의 동파 위험은 없는가 점검한다.
- 돈사가 밀폐되고 결로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므로 전기줄 및 전기기기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

2) 환경관리

돈사가 거의 하루종일 밀폐되므로 공기의 오염이 심해지게 된다. 따라서 적정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환기 관리가 특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 밀폐된 상태에서 돈사내 가스 오염 정도를 점검한다.
- 실내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온도관리와 환기 관리를 병행하여 최적 환기량을 결정한다..
- 1일 1회 돈사내 분무소독으로 가스발생 및 병원균, 먼지발생을 감소시킨다.
- 각종 환경개선제의 사용은 가스발생을 완전

차단시키지 못하지만 일정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는 볼 수 있다.

- 빈돈방은 철저히 수세 및 소독하고 가능하면 올-인, 올-아웃을 실시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올-아웃 만이라도 실시한다. (앞으로 의 양돈업에서 중요한



빈돈방은 철저히 수세 및 소독하고 가능하면 올-인, 올-아웃을 실시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올-아웃 만이라도 실시한다. (앞으로 의 양돈업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파콤에이, 저
맥스...)

- TGE, PED 방제 목적

: 바이러스 전문 제제 사용 (예 : 올비벤3, 팜플로이드...)

- 발판소독 : 페놀제 (예 : 단졸, 오메졸...)
- 차량 및 기구 소독 : 계면 활성제(예 : 태고 도르...)

2) 소독방법

과제가 될 것임)

3. 소독 및 방역관리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설사와 호흡기 질병의 발생위험이 높아지므로 소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며 평균기온이 낮으므로 다른 계절과는 소독약제 및 소독방법을 달리 해주어야 한다. 또한 소독약제의 사용이 증가하므로 용도에 맞는 제제를 확보해둔다.

1) 소독약제

- 농장 출입구, 진입로 및 출하대 등에는 생석회를 뿌려 둔다.
- 돈사내 분무소독 : 4급 암모늄 제제 (예 :

- 오염된 돈사내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 주 3회 이상은 분무소독 실시 (1일 1회 분무소독 권장)

- 소독은 따뜻한 낮 시간에 한다.
- 찬물을 피하고 보일러 온수를 이용하여 소독을 한다. (분무소독, 돈체소독)
- 소독기의 보관은 얼지 않도록 돈사내에 한다.
- 발판소독약은 매일 교체한다.
- 각종 소독약의 희석배율을 반드시 준수한다. 돈가 하락으로 인해 자칫 사육 의욕이 저하되 기 쉽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는 것처럼 이번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에 임해보도록 하자. **養豚**